"건축물 안전은 점검부터 시작"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 무주군 찾아 안전점검 현장 행정 펼쳐

김종훈 정무부지사가 21일 무주군을 찾아 무주군의 상징 건축물인 반딧불체육관과 반딧불 장터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 행정을 펼쳤다.

김종훈 정무부지사가 21일 무주군을 찾아 무주군의 상징 건축물인 반딧불 체육관과 반딧불 장터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정부 기조에 맞춰 이들 시설들을 둘러본 후 도정 안정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반딧불체육관과 무주 반딧불 장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도 사회재난과장의 개요설명과 군 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과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 현황 청취,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점검은 드론점검 시연과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를 차례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점검부터 시작한다"며 "분야별 안전점검을 수시로 펼쳐 재난과 사고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7년 준공된 무주반딧불체육관은 철골조 막구조로 테니스장 4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무주 반딧불 장터는 7,314㎡ 규모에 장날(1,6일) 일별 3천명이 이용하는 무주 대표 전통시장이다.

황인홍 군수는 "민선8기는 군민이 안전한 무주군 건설을 기조로 이들 시설뿐만 아니라 무주군이 보유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온정 나르는 행복밥차 찾아갑니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어르신 가정 방문 도시락 전달

무주군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를 운영하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이달부터 10월까지 관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밥과 국, 떡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다.

도시락은 이동급식 차량을 이용하며, 어르신들과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끼식사로 제공된다. 6개 읍면 1,600여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21일 자원봉사자들은 무주읍 여성센터에 모여 무주읍 32개 마을 600여명의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황인홍 군수는 자원봉사를 위해 여성센터를 찾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황인홍 군수는 "행복밥차 운영은 읍·면 어르신들과 소외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르는 따뜻한 점심식사(도시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며 "소외감을 덜어주고 자생단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무주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그맨 손헌수 진행 장수사과 특별판매전

23~29일 Btv서 방송

장수군은 사과(홍로) 판매를 위해 청년회장 개그맨 손헌수가 진행하는 TV홈쇼핑 '장수사과 특별판매전'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Btv(채널 1) 방송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판매 기간 중 홈쇼핑은 오전 10 ~ 11시, 오후 2~ 3시, 오후 4~5시, 하루 3회 총 21회 방송될 예정이며 장수몰(www.장수몰.com)과 전화(080-906-9900)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장수몰을 이용해 사과를 구입할 시 전화보다 최대 14%이상 할인 가격으로, 3kg(1상자) 1만9,900원, 3kg 2상자는 30,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장수사랑상품권을 장수몰 페이로 전환해 구매하면 24% 이상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 영화

진안군, 원동창마을 · 마조마을 참여… 시사회 가져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진안 마이골 작은 영화관에서 마을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 영화' 시사회를 가졌다.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 영화'는 백운면 원동창마을과 정천면 마조마을이 참여하고 지역 출신 임혜령 감독이 지도 강사를 맡아 진행했다.

마을별로 마을영화에 대한 이해, 마을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만드는 과정, 대사 연습과 촬영 등 4개월에 걸쳐 총 17회 교육과 촬영 과정을 통해 영화가 탄생했다.

백운면 원동창마을은 '벽화 그리던 날(15분)'이란 제목으로 마을만들기가 탐탁지 않던 주민과의 갈등을 마을벽화 그리기를 통해 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천면 마조마을은 '마음 고지서(18분)'란 제목으로 마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그렸다. 영화 상영 후에는 제작에 참여한 배우들과 감독이 관객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영화는 10월 진안에서 열리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에서도 상영할 예정이며, 시사회 이후 SNS를 통해 온라인 상영도 계획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보다 많은 마을이 참여하여 각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마을기록가 양성교육(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 영화)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주택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사망자 발생 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내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고, 화재 발생 시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시급하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화재 취약계층 무상보급 △대중매체 집중 홍보 △지역 주민밀착형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안성농공단지 등 찾아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무주군 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설천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구천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구천동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태권마을 조성사업, 태권어드벤처 조성사업과 반디랜드 주말장터 현장을 방문했다.

21일에는 복합문화도서관 건설현장을 비롯해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안성농공단지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진행 과정을 설명 듣고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했다.

원당천과 구천동천과 관련해 오광석 부의장은 "하천 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어 태권어드벤처 조성사업이 시설 준공 후에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을 찾는 논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반디랜드 주말장터 참가주민과 간담회도 가진 의원들은 농민들의 노력이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95회 정례회 기간 주요활동으로 현장방문을 계획한 무주군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과 난제를 자세히 알게 됐다고 평가하며 철저한 사업 진행을 강조했다.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은 "함께 현장을 다니며 사업 관계자와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다보니 훨씬 깊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방안 찾아야"

김명갑 군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은 2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명갑 의원은 미래농업은 노동력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적극 개발하고 품목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갑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진안 로컬푸드 매출은 2021년도 기준 70억여원으로 2019년 매출 대비 200%가 넘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가공품 매출 비율은 22%에서 대폭 감소한 10%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다."며 "효과적인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계획 중에 있는 '헬스푸드 공동 가공센터', '농업인 가공센터'의 심도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갑 의원은 "농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지역 농산물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아울러 안정적인 가공품 생산을 위해 많은 농가들의 참여와 홍보는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값 하락 따른 보전 대책 마련해야"

동창옥 군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동창옥 의원(나 선거구)은 2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 대책 마련'과 '벼 타작목 전환 대책 마련'에 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동창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각종 농자재 값 상승에 따라 연일 농업경영비가 치솟고 있으며, 우리지역도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하락과 재고량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벼는 진안군 농림업소득액 1,106억원 중 16.5%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쌀값이 얼마인가에 따라 농업소득액이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군에서는 하루빨리 쌀값하락에 대비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의원은 계속되는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관내 가축사육에 필요한 조사료 자급률이 73.3%에 불과한 상황을 소개하며 "우리지역의 토질과 기후조건을 감안한 생산기반 구축과 조사료 생산 및 두류·잡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창옥 의원은 "농업은 진안군민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군의 핵심산업"이라며 "이번 질의를 통해 진안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효율적인 용담호 주변 쉼터 운영 필요"

이명진 군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은 2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성화 방안 마련'과 '용담호 휴게소, 쉼터 및 미술관의 향후 대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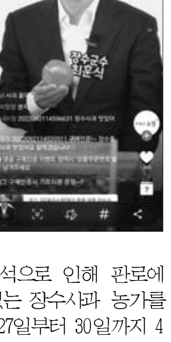
이명진 의원은 "행정에서는 군민의 편익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진안군에서는 다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설치된 시설물의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운영목적을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관내 9개 읍·면 16개소에 설치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경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시설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방치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용담호 주변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설치된 2개의 휴게소와 4개의 쉼터 건축물을 언급하며 "매년 시설물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보수비 지원에 비하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군민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시설물이 지어지고 있다."며 "건물의 신축 못지않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면밀한 법적검토와 분석을 통해 인구유입과 농가소득 증대와 같은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로 장수사과 판매·축제 홍보



장수군이 군 대표 농산물인 장수사과와 2022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21일 실시했다.

행사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사과 농가를 돕고,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장수군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수사과 홍로 20~24과를 17,800원에 할인 판매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체국 쇼핑몰과 연계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특별게스트로 초대된 최훈식 군수는 장수사과의 차별화된 맛과 품질에 대해 설명하고, 코로나 이후 새롭게 개최되는 '제16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전국의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했다.

최 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통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흑염소 영농조합법인 염소 브랜드화 박차

진안흑염소 영농조합법인(대표 진철수)이 염소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흑염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8년도에 조직된 이후,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라는 우수한 지역적 특성과 기후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염소를 생산, '제 값을 받고 출하한다'라는 Three Project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출하체중이 많이 나가는 '육용종염소'를 선택, 기존 출하가격 대비 약 50%가량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현재 전문 주식회사인 ㈜이비가푸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진안에서 생산하는 염소를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산군에 자체 브랜드인 '마이산흑염소' 1호점, 무주에 2호점을 개점, 진안군에서 육성한 염소를 공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인터넷 판매를 통한 홍보 및 체인점 구축 등을 확대하고, 가공·유통분야를 구체화 한 밀키드 제조, 염소 진액의 다양화, 염소 육포 등을 제조하여 고소득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5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 아동 돌봄에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돌봄역량을 제고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종사자로써 해마다 이론과 실기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기본의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종사자들의 현장 체험활동 및 소통장 운영하여 센터별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토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농기센터, 사과 사이버팜 체험행사 진행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는 '장수사과 사이버팜' 체험행사가 오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장수 사과시험장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사이버팜을 통해 하니 사과나무를 분양받는 도시민들에게 수확체험의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올해 총 475주의 사과나무를 분양한 장수사과 사이버팜은 '홍로'사과 수확체험을 시작으로 하니, 후지 3품종을 수확할 수 있다.

지난 9월 3일, 4일 홍로사과 수확체험에 400명의 체험객이 참여해 수확체험을 했으며, 이번 하니사과는 총 100주를 분양해 250명의 분양자와 가족들이 수확체험을 할 예정이다. 체험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사과 수확요령과 포장 방법 등을 안내해 수확 체험객의 편의를 돕는다.

김현철 소장은 "이번 수확체험이 장수사과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도시민들에게 수확체험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